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송순택¹, 최희철^{2*}

¹행복일자리운동본부 경기도지부장, ²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Effects of Ego-Resilience, Family Fun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of the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Soon-Taek Song¹, Hee-Chul Choi^{2*}

¹Branch Manager, Gyeonggi-do Branch, Happiness Job Movement Headquarters

²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원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변인인 과정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감정조절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불안이 높아져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아탄력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적응 과정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도적 보완 등을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신건강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go-resilience, function of family, stress of adapting to a new culture perceived by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Gyeonggi-do on their mental health. In doing so, the study sought to suggest effective supportive visits to enhance their mental health. For this, the study carried out a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mong 304 middle school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at Gyeonggi-do. The study found following results. The higher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y perceived the procedural stress, sub-variable of stress of adapting to a new culture and the lower they perceived emotional control, sub-variable of ego-resilience, the higher depression and anxiety they experienced, resulting in worsening of their mental health stat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in order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of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their ego-resilience, discussed and suggested development of psychological/emotional programs, preparation of supportive measures to overcome their stress in the course of their cultural adaptation as well as systematic supplementation of related laws in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Ego-resilience, Family function, Acculturative stress, Mental health

*This manuscript is based on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first author, Soon-Taek, Song.

*Corresponding Author : Hee-Chul Choi(pride838@kangnam.ac.kr)

Received December 22, 2019

Revised February 5,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경기도는 전국에서 국제결혼이민자의 수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1995년 이후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취학연령으로 진입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2018년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 전체 초중고의 자녀 수는 23,027명이며 이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5,515명으로 전체의 23.9%를 보이고 있다[2]. 그 수도 2013년 3,127명에서 2018년 5,515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급격한 양적팽창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양육 태도 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겪는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3-5]. 곧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이 서로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동을 겪고,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의식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6].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아동에 비해 결혼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정체성 형성의 새로운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전환의 시기로, 위협 요인에 대해 민감한 '취약성이 높은 단계'로 정신건강의 문제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상 문제를 보면, 결혼이주민 자녀의 14.3%가 우울과 무력감을 느끼고, 27%가 인터넷 게임 등의 컴퓨터 사용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차별이나 놀림, 따돌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29.4%), '말이 안 통해서'(15.6%), '내 태도와 행동이 다르므로'(13.3%), '외모가 다르므로'(9.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라기보다 단순히 그들 부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전체 585명 중 390명(66%)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이중문화 속에서 일반자녀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체성 형성, 언어학습, 대인관계 과정 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8-10].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른 문화 간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변화와 이로 인한 적응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이 있는데, 통합이나 동화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주변이나 분리 유형의 사람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으며 문화적응 수용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정신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1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새로운 사회에 관한 불안, 우울, 소외감 등 심리적 부적응의 양상을 나타낸다[14]. 이런 불안정한 성장환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낮추게 하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해외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캐나다에 부모를 따라 이민 온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 정신건강 등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외에 자아탄력성 요인과 가족기능의 요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과 함께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적응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는가가 중요한데,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 혹은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도 융통성있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16]. 자아탄력성은 어떤 상황의 요구가 있을 때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적응을 예방하고 대처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불안에 대해 덜 민감하도록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해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7-19]. Min[20]에 의하면,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 또한 양호함을 보고하였다. 다문화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동반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감소되었다는 결과[21]도 제시되었다. 곧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른 긴장과 인내를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서 변화하는 상황적인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을 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 진다[22]. 특히 정신건

강상 어려움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자아탄력성 향상은 특히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것이다.

한편 가족기능의 구성요소는 가족구성원 간 심리적인 유대로 가족이 함께 밀착된 정도로서 가족구성원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가족결속력과 상황과 발달 스트레스에 의한 힘의 구조, 역할관계와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가족적응력으로 설명된다[23]. 또한 가족이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의 주요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다[24].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유대가 높을수록 온화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족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자녀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느끼며 정서적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25-27]. 또한 정서적 상황에 의해 가족구성원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서적 부분은 가족구성원이 전체가족의 응집력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족응집력을 중시하였다[28]. 이는 곧 정서적 문제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는 가족결속력과 가족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족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자녀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거나[29, 30], 적응요인을 알아보려는 연구[31-33], 혹은 정신건강의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연구[34-36]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모색과원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주 지역을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자체 및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복지 분야의 실천적이고 정책적 제안들에 필요한 자료로 유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중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4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내 일선 중학교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중에서 접촉이 가능하고 설문조사가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각 기관과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담당자에게 설문지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후 이들이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설문지 내용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얻은 후, 직접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종료되면 각 학교 및 기관 담당자에게 설문조사의 완성도를 검토하게 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350부를 배포하여 이중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전체 304명 중 남학생(153명)이 50.3%, 여학생(151명)이 49.7%로 비교적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14.26세(표준편차 1.15)였으며, 연령 분포는 13세가 가장 많은 89명(29.3%)이었고, 12세가 7명(2.3%)으로 가장 적었다.

다문화가족의 거주지는 경기도 지역 중 안산시(102명) 33.6%와 그 다음이 가평군(94명) 30.9%를 나타내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안산시의 경우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주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평군은 통일교 재단을 형성하여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거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유형(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229명(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응답이 181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어렵다고 응답한 인원도 63명(20.7%)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1]에서 제시된 중학생 65%,와 고등학생 64%의 보통수준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4)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153	50.3
	female	151	49.7
Age	12	7	2.3
	13	89	29.3
	14	81	26.6
	15	85	28.0
	16	32	10.5
	17	10	3.3
Mean 14.26 (S.D 1.15)			
Residential district	Siheung	25	8.2
	Uiwang	12	3.9
	Ansan	102	33.6
	Gapyeong	94	30.9
	Suwon	23	7.6
	Namyangju	28	9.2
	Hwaseong	5	1.7
	Guri	13	4.3
	Bucheon	1	0.3
Anyang	1	0.3	
Domestic family type	parents, children	229	75.3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22	7.2
	single parent, children	33	10.9
	relative, children	10	3.3
Family economic circumstances	etc	10	3.3
	very poor	5	1.6
	poor	58	19.1
	iaverage	181	59.5
	rich	54	17.8
	very rich	6	2.0

먼저 성별은 전체 304명 중 남학생(153명)이 50.3%, 여학생(151명)이 49.7%로 비교적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14.26세(표준편차 1.15)였으며, 연령 분포는 13세가 가장 많은 89명(29.3%)이었고, 12세가 7명(2.3%)으로 가장 적었다.

다문화가족의 거주지는 경기도 지역 중 안산시(102명) 33.6%와 그 다음이 가평군(94명) 30.9%를 나타내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

유는 안산시의 경우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주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평군은 통일교 재단을 형성하여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거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유형(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229명(75.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응답이 181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어렵다고 응답한 인원도 63명(20.7%)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1]에서 제시된 중학생 65%,와 고등학생 64%의 보통수준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2.2 조사도구

2.2.1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Achenbach가 1983년 개발한 검사도구를 1997년 표준화한 한국판 척도[37]로서 모두 1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정신건강 상태의 파악을 위해 우울불안 척도 16문항을 조사에 활용하였다. 점수는 높을수록 우울불안 상태가 높아서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값이 .817로 나타났다.

2.2.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Oshio et [38]이 개발한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Min[20]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요인', '감정조절 요인', '긍정적 미래 지향성 요인'의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가 탄력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52이었으며, 하위영역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814, 감정조절 .765, 미래지향성 .742로 나타났다.

2.2.3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Olson et al.[39]이 개발한 FACE-III 척도를 Jeon[40]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사정한다. 이 척도는 가족 응집성 10문항과 가족적응성 10문항의 모두 20문항으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가족응집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54, 가족적응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7로 나타났다.

2.2.4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Mena et al.[41]이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바탕으로 Eun[14]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사회적 스트레스 16문항을 제외하고 문화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의 20문항만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적응 과정상의 스트레스 10문항, 차별 스트레스 6문항,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68, 하위영역인 문화적응 과정상의 스트레스 .811, 차별스트레스는 .697로 나타났다.

2.2.5 통제변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지, 동거가족형태, 경제적 형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반적 응답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변인들의 하위영역을 포함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의 값을 Table 2와 같이 알아보았다.

첫째, 먼저 자아탄력성의 전체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54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영역별 비교에서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은 3.61, '긍정적 미래지향성'은 3.65,

'감정조절'은 3.38로 나타나 대부분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둘째, 가족기능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29로 조사되었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은 3.45, 가족적응성은 3.13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39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과정상의 스트레스 3.34, 차별스트레스 3.5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우울·불안)은 1.36(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N=304)

Variables	Mean	S.D	Min	Max
Ego-resilience	3.54	0.54	1.53	5.00
Interest	3.61	0.61	1.57	5.00
Positive future	3.65	0.74	1.40	5.00
Emotion control	3.38	0.59	1.57	5.00
Family function	3.29	0.52	1.40	5.00
Family cohesion	3.45	0.58	1.40	5.00
Family adaptability	3.13	0.52	1.40	5.00
Acculturative stress	1.39	0.72	0.00	4.60
Process stress	1.34	0.76	0.00	4.71
discrimination stress	1.52	0.73	0.00	4.33
Mental health	1.36	0.34	1.00	2.63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과 동거가족 형태,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Table 3과 같이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제외한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과 동거가족 형태의 변수들에서는 정신건강의 평균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하(a), 중(b), 상(c)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F=3.962, p<.05), Scheffe의 사후 검증 결과 하(a) 집단(1.47)과 중(b) 집단(1.33) 간에 평균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낮은 경제적 형편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중간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우울불안(정신건강)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04)

Variables	Categories	N	Mean	SD	t/p
Gender	male(code=1)	153	1.33	0.35	-1.388 (0.166)
	female(code=0)	151	1.39	0.33	
Age	12-14(a)	177	1.34	0.34	-1.165 (0.245)
	15-17(b)	127	1.38	0.35	
Residential district	gyeongbu(a)	36	1.45	0.39	1.825 (0.163)
	west(b)	133	1.36	0.34	
	eastern(c)	135	1.33	0.33	
Domestic family type	parents, children(a)	229	1.35	0.34	1.213 (0.306)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b)	22	1.45	0.44	
	single-parent, children(c)	33	1.44	0.34	
	relative, children(d)	10	1.15	0.04	
	etc(f)	10	1.26	0.35	
Family economic circumstances	down(a)	63	1.47	0.35	3.962 * (0.020) (a)(b) inter group
	middle(b)	181	1.33	0.34	
	up(c)	60	1.32	0.34	

*p<.05

3.3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동거가족형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일반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래의 Table 4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동거가족형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투입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모델 1에 투입된 모든 통제변수들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변인을 모델 1에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10.4%가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3.330, R²=.104), 추가된 자아탄력성에 의하여 6.9%(R² Change =.069)의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 통제변수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감정조절(β =-.240, p<.01)만이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고, 그 외 모든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 가족기능의 각 하위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그 결과 정신건강을 11.2%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된 가족기능으로 0.8%(R² Change =.008)의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모델 3에서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β =-.223, p<.01)만이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고, 그 외 모든 변수들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 4는 모델 3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각 하위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최종모형으로 정신건강을 33.2%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하여 22.0%(R² Change =.220)의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여기서는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과정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β =.588, p<.001), 성별(β =-.173, p<.01)과 감정조절(β =-.147, p<.01)이 그 다음으로 정신건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감정조절은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변인인 과정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감정조절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 불안이 높아져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그 외의 나머지 변인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the Mental Health

(N=304)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1.326		4.449	1.791		5.719	1.816		5.713	.973		3.349
Gender	-.038	-.054	-.891	-.054	-.076	-1.285	-.057	-.082	-1.368	-.122	-.173	-3.270**
Age	.021	.069	1.128	.021	.069	1.175	.023	.076	1.283	.019	.062	1.205
Residential district	-.053	-.102	-1.697	-.038	-.072	-1.230	-.031	-.060	-1.010	.008	.015	.290
Domestic family type	.005	.013	.212	.000	-.001	-.013	-.003	-.009	-.142	.004	.011	.203
Family economic circumstances	-.061	-.112	-.112	-.039	-.072	-1.190	-.035	-.063	-1.033	-.009	-.017	-.322
Interest				.037	.064	.795	.049	.086	1.036	.064	.113	1.564
Positive future				.037	-.105	-1.333	-.046	-.096	-1.217	-.014	-.030	-.439
Emotion control				-.142	-.240	-.3441*	-.132	-.223	-3.101**	-.087	-.147	-2.331**
Family cohesion							-.070	-.117	-1.237	-.004	-.007	-.081
Family adaptability							.025	.036	.400	-.002	-.002	-.031
Process stress										.270	.588	6.109**
discrimination stress										-.033	-.069	-.770
R ²	.035			.104			.112			.332		
Adj. R ²	.018			.077			.095			.302		
R ² Change	-			.069			.008			.220		
F	2.019*			3.330***			3.929***			11.078***		

*p<.05, **p<.01,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원조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먼저, 모델 2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감정조절은 모델 3, 4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Min[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모델 4에서 통제변수인 성별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신건강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모델 4에서 문화적응상의 과정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이탈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을 높인다는 Lee[42]의 결과와 캐나다에 부모를 따라 이민한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포함한 심리적 적응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Jang과 Kim[1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이중문화 속에서 문화적응 과정 스트레스에 잘 적응해나가기도록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요인을 정리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 과정스트레스, 성별, 자아탄력성 하위 감정조절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천적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자아탄력성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청소년기에 겪는 일반적 변화와 다문화 특수성이 포함된 인간관계 형성, 사회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특성 및 강점을 발견하고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상의 과정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문화적응상의 과정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타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의식이 함양되도록 문화적 역량에 관한 관점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문화적 역량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현장의 욕구에 임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므로, 경험과 교육을 통한 타문화를 이해하도록, 학교현장의 학생,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주제로 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학업과 관련된 어휘능력 향상, 사회적응, 정보공유 등으로 국한된 것이 현실이다. 일차적인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일선 학교,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각종 비영리 및 종교단체 등 지역유관기관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의 주체는 지역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도록 하며,

실질적인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및 조기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다문화 가정의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지원법 등의 관련 법률의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기도 지역의 여러 시·군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부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 지역과 참여하지 못한 지역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에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후속연구에서 지역별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한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의 변수는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매개변수로도 언급되어지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매개변수로의 모형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 S. Jeon, Y. M. Lim, J. S. Yang & E. J. Lee. (2010).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Support Plans of Youth Gyeonggi-do Multicultural Families*. Gyeonggi-do Women's Research Institute.
- [2] Y. H. Kim, J. G. Park, N. R. Hwang & H. L. Ju. (2018). *Establishment of Gyeonggi-do Multicultural Policy Master Plan (2019 ~ 2023)*.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 [3] H. J. Shin. (2007).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4] J. H. Seo. (2009). *Impact of Self-Concept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5] H. K. Kim. (2011). *A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s Thesi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6] H. R. Kim, J. Y. Yeo, J. J. Jeong & S. H. Baek.

- (2012). *Health Statu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Health Policy Recommendations.*. Research Report 2012-1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7] S. H. Lee & S. H. Lee. (2013). Children'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4(3)*, 124-131.
DOI : 10.5765/jkacap.2013.24.3.124
- [8] D. H. Seol, Y. T. Kim, H. M. Kim, H. S. Yoon, H. K. Lee, K. T. Lim, K. S. Jeong, Y. S. Ju & G. S. Han.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9] S. B. Oh.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10] Y. D. Cho. (2006). *Survey on the Status of Children's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Research Project 2006-Issue-3,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11] M. A. Gibson. (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19-23.
DOI : 10.1159/000057037
- [12] J. W. Kang. (2012).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Ethnically-based Sporting Culture Among the 1.5-2nd Generation Korean-Australian Children. *Studies of Koreans Abroad, 27*, 7-59.
- [13] A. G. Gil, W. A. Vega & J. M. Dimas.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1)*, 43-54.
DOI : 10.1002/1520-6629(199401)22:13.0.co:2-t
- [14] S. G. Eun.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Doctoral'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5] I. O. Jang & H. A. Kim. (2014).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 Generation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25(1)*, 59-84.
DOI : 10.14816/sky.2014.02.72.59
- [16] J. H. Block & J. Block.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3).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 [17] H. H. Yoon, C. H. Hong & J. H. Lee. (2001). Development of Parent form Ego-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Science, 10(1)*, 33-53.
- [18] J. W. Lee, H. K. Yu & H. S. Shin. (2009).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Ego-Resilience of Lower Grad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Role Play. *Child Education, 18(3)*, 201-212.
- [19] H. O. Kim. (2010). *The Effect of Children's Social Network on Self-Perceived Competence,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0] D. I. Min.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Doctoral's Thesi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1] S. J. Kim. (2013).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Problems on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y: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2] M. H. Ki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3] D. H. Olson, C. S. Russell & D. H. Sprenkle. (1980). Marital and Family Therapy: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973-993.
DOI : 10.2307/351836
- [24] Y. H. Ahn. (198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and Male Adolescents' Mental Health..* Doctoral'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5] H. J. Kang.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6] S. B. Jeong.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 of Family Function and Mental Health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7] T. S. Kim.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Doctoral's Thesis, Ha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8] J. Y. Kim. (1997). *A Study on Child Mental Health by Family Func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9] H. H. Kim. (2007). The Actual State and Task of Multicultural Welfare for Children and Juveniles, *Journal of Kor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11, 75-92.
- [30] K. S. Jeon.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Youth Counseling Research*, 16(1), 167-185.
DOI : 10.35151/kyci.2008.16.1.011
- [31] S. M. Yang. (2007).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2(4), 559-576.
DOI : 10.18205/kpa.2007.12.4.008
- [32] S. H. Park, W. T. Cho & J. H. Lee. (2008). A Study of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Community Welfare*, 27, 53-76.
- [33] Y. J. Lee. (2008). Adjustment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in Multi-Culture Families: A Study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Family Welfare*, 13(1), 79-101.
- [34] H. J. YONG. (2009).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Immigrant Wmen on the Mntal Health of their Childre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5] M. J. Yeom. (2011).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n the Mental Health of 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6] M. J. Yeom & Soo Yang. (2014). A Study on the Maternal Cultural and Emotional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ren'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Mental Nursing*, 23(1), 1-11.
DOI : 10.12934/jkpmhn.2014.23.1.1
- [37] K. J. Oh. (1997). *K-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Seoul : Central Appointment Publisher.
- [38] A. Oshio, M. Nakaya, H. Kaneko & S. Nagamine.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 57-65.
- [39] D. H. Olson, J. Portner & Y. Lavee. (1985).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mily Social Scienc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40] G. Y. Jeon. (1994). *The Effects of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tion and Family System Typ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Adaptation*. Doctoral'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41] F. J. Mena, A. M. Padilla & M. Maldonado. (1987). Ac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 207-225.
DOI : 10.1177/07399863870092006
- [42] G. R. Lee. (201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in North Korean Defector Youth: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1(1), 157-180.

송 순 택(Soon-Taek So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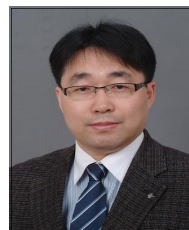


- 2010년 7월 ~ 2018년 6월 : 8, 9대 경기도의원
- 2015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박사)
- 2019년 12월 ~ 현재 : 행복일자리운동본부 경기도지부장

- 관심분야 : 다문화복지, 청소년복지
- E-Mail : happygim@hanmail.net

최 희 철(Hee-Chul Choi)

[정회원]



- 2009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9년 8월 ~ 2010년 2월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
- E-Mail : pride838@kangnam.ac.kr